

내년 세계 한상대회 유치 노력 '박차'

김관영 도지사,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면담... 유치의사 전달도, 이차전지 등 신산업에 전통 문화 접목한 신개념 대회 준비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을 공식 면담하고, 오는 2024년 세계 한상대회의 전북 유치와 재외동포들의 한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도는 2024년 세계한상대회의 전북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 한인상공회의소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온 것을 비롯해 재외동포청의 전인인 재외동포재단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이와 함께, 전북이 지난 전통과 문화에 이차전지 등의 신산업을 연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한상대회 개최를 강조하며 대회 유치에 강한 의지를 표출해 왔다.

이번 김 지사와 이 청장의 공식 면담 역시 지난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과의 협력 강화와 2024년 세계한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을 공식 면담하고, 오는 2024년 세계한상대회의 전북 유치와 재외동포들의 한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상대회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됐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재훈 기자

이자라에서 세계한상대회와 함께, 재외동포들의 한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재외동포청과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김 지사는 "초대 재외동포청장으로 취임하신 이기철 청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2024년 세계한상대회의 전북 유치 뿐만 아니라, 750만 재외동포들의 지원을 위해서도 재외동포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전통과 문화적 기반에 이차전지 산업 등 미래 성장의 역동성을 접목해 한상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한상대회를 준비하겠다"며,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북의 변화를 세계속의 한상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대회 유치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분산돼 있던 재외동포 업무를 일원화해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지원 기관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달 5일 공식 출범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4기 전북 인권위원회 이임식.

인권보호·증진에 '최선 다했다'

제4기 전라북도인권위원회 2년 임기 만료... 이임식 개최

전북도는 지난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지난 2년여 임기를 마친 제4기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이임식을 가졌다.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학계, 법조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제4기 인권위원회는 지난 임기 2년동안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었다.

도민 인권침해·차별행위 조사건 및 인권장제에 대한 심의·자문 등 전체 회의 11회, 인권역량 확대를 위한 토론회 3회, 지역 내 인권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워크숍 2회 등을 비롯해 도민의 인권침해사건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접근을 위한 권리구제소위원회를 10회 개최하는 등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역할에 성실히 임했다.

임기를 마친 설동훈 위원장은 "지역 내 인권침해·차별에 맞서 우리 위원회가 미력이나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달려왔다"며, "전라북도가 인권도시로 단단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인사발령을 통해 "도내 인권기반을 다져 온 제4기 전라북도인권위원회에 무한한 감사드리고,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 모두가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농특산물·가공식품 등 23개 품목... 20~21일 신청서류 도 자치행정과 제출

전북도는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고향사랑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자 공급업체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2차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품목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모집품목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전통주, 공예품, 체험·관광, 유·무형서비스, 유가증권 등 총 23개다. 참가를 희망하는 공급업체는 1개의 품목에 2개의 상품을 신청할 수 있고, 동일상품에 대해서는 가격대를 달리 해 제안할 수 있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사업체(개인)는 전라북도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20일에서 21일까지 신청서류를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팀(280-2375)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서류 및 현장조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는 추가 선정된 답례품을 9월부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선호도를 분석하고,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해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물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 챔버리 야영지 해충방지 '총력'

모기·진드기 등 해충 발생 최소화 위한 방제작업 등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챔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챔버리' 행사를 대비해 모기나 진드기 같은 해충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방제 작업을 실시하여 참가자의 건강과 위생관리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먼저, 3월부터 '행사장 방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챔버리 야영장 및 인접부지 등의 해충방제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행사기간 전부터 챔버리 야영장과 인접 지역의 모기 유충 제거 위해 드론 방제를 추진하고, 모기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인근 하천 정비 및 축사 내에 유문등을 설치하는 등 질병관리청과 부안군의 협조를 받아 사전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사기간 내에는 참가자 숙영 텐트, 저류지, 화장실·사위장·분리수거장 등에 매일 방제작업을 실시해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챔버리 야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모기 밀집도 및 참가자에게 해충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챔버리 야영장 내 포충기 및 유문등 대집화장 및 멀티구역 입구 주변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 할 예정이며, 새만금 개발청·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에서 참가자에게 배포할 개인용 해충기피제를 후원받아 배포할 예정이다.

이울러, 참가자에게 챔버리 야영장 내 긴옷착용, 개인용 해충기피제 지참 등 사전 안내문을 배포해 참가자들이 해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외국인 차별 받지 않게 조례개정 검토" 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여름방학 특강

전북도, '외국인에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7일 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을 제외하는 안 된다는 권고를 전북이 수용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북에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주민을 제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 △ '지방자치법'에서 외국인 등록으로 주소를 신고한 이주민도 주민으로

정하고 있고, 판례도 외국인 등록이 주민 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임상 제약으로 피해를 본 도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등 긴급재난지원금 취지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적용된다는 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전북은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다시 생길 경우 외국인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3

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여름방학 특강 '신나는 미술놀이' 등 6개 프로그램... 10일부터 접수 시작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하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체험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여름방학특강은 학교, 어린이집 등 주요 어린이 시설의 방학기간인 25일부터 8월 5일까지(월요일, 일요일 제외) 2주간 진행된다.

신기한 미술을 배우보는 '신나는 미술놀이', 가족과 함께 하는 요리수업인 '가족제빵소'와 '가족요리여행', 유명 화가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뽕그림 미술관' 등 6개 프로그램을 60회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접수는 어린이창의체험관 누리집(jchild.kr) 체험교육(상상문화센터)에서 7월 10일 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창의체험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귀의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여름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관에 방문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르고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여름방학 특강 이외에도 가족과 함께 방학을 즐길 수 있도록 23일 체험관 공연장에서 '작은 서커스'도 상연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